

Ⅰ. 새로운 교화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1. 교화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발상의 대전환

1) 교화환경의 급격한 변화

80여년간 우리 교단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80여년전 農業중심 사회였던 한국은 오늘날 工業사회를 거쳐 탈산업, 첨단산업사회 중심으로 변하였다. 라디오마저 귀한 시대에서 칼라 TV와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가 대중화된 사회가 되었다. 쇄국정책을 펼쳐 우리 민족문화 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했던 시대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을 통해 국제화와 선진화를 부르짖는 사회가 되었다. 3대가 모여 살던 대가족제도는 어느샌가 붕괴되어 젊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중심이 된 핵가족사회가 이미 실현된 지 오래이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1자녀 갖기가 일반화 되고있다. 교육열이 높아져서 4년제 대학만도 141개나 설립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도 5천불을 넘어섰다. 한국사회는 이렇게 동아시아체제에서 세계체제에 편입된 1876년 開國 이후 1세기를 거치면서 질와 양의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국제관계 역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탈냉전체제가 되면서 제 1세계 뿐만 아니라 제 2세계와 제 3세계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 졌으며, 민족통일의 과제 역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세기의 변화 못지 않게 금년 1년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른바 文民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서 충격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난것이다. 정치적으로 부도덕한 정치인들이 대거 공직에서 물러났고,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우리 사회의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과격한 시위집단의 목소리가 줄고 건전한 시민운동단체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이나 YMCA, 환경운동시민연합과 같은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이 두드

러지게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 서면서 부터이다. 변화와 개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 대기업에도 강하게 불어 닥쳤다. 이른바 ‘이건희 신드롬’ 현상이 널리 확산된 것이다. 자식과 마누라만 빼놓고 모든 것을 혁신하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생각이 때마침 불어 닥친 변화와 개혁의 불을 타고 커다란 불길로 사회 전반을 강타하였다. 또한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국내 시장 개방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의 모든 기업은 自社 제품이 일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화와 세계화’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으며, 언론은 냉엄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연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에 질세라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지난 1992년에 서울대 이면우박사에 의해 ‘W이론’의 창조가 제창되었고, 1993년에는 인문과학 분야에서 역시 서울대 조동일교수에 의해 ‘우리 학문의 길’을 모색하자는 진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2)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은 어떠한가. 엄청난 변화와 개혁 바람을 타고 있는 한국사회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교단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밖에서 부는 변화와 개혁 바람을 창조적으로 수용할 만한 만반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하여 무한히 열려 가는 세계를 향한 부단한 전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敎團의 持續的 發展,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持續的인 敎化 發展이 가능한 지를 진단하기 위하여 먼저 교단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교단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바깥 환경을 요약하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밝은 면이란 사회민주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시민문화가 정착되어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원불교의 교리 사상을 선호할 조건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즉 西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귀의를

1) 참고로 1993년 12월 2일자 東亞日報 10면을 보면, 「이런 기업이라야 오래 살아남는다」는 제목하에 다품중소량생산, 한우물파기, 경영혁신계속, 자기만의 기술력, 독자제품 생산, 자유로운 분위기, 결속력강한 조직 등을 들고 있다.

주장하는 맹목적이며 타력적인 신앙보다는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합리적이며 자력적인 신앙이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어두운 면이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전통적인 종교의 역할과 활동 및 종교 교역자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고유한 역할”에 대하여 점차 무관심 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수 백년 또는 수 십년 동안 지켜져 왔던 옛 종교적 전통들이 탈산업사회·첨단산업사회에 오게 되면 대중들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에 따라 종교적 전통에 따라 행동하는 교역자들은 사회와 대중들에 대하여 고루하게 비취질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과 인기조차 점차 사라져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둘러싼 바깥 환경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깥 환경이란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간에 항상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지녀 왔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단 발전이 바깥 환경에 좌우되었다기 보다는, 바깥 환경을 교단 발전에 슬기롭게 활용해 온 교단 내부의 주체적 노력과 대응자세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바깥 환경이 긍정적이라 할 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바깥의 좋은 환경은 한갓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바깥 환경이 어렵다 할 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만한 실력과 역량을 지니고 있기만 한다면 교단을 둘러싼 바깥 환경을 도리어 교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좋은 거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교단 바깥 환경을 교단 발전에 필요한 좋은 거름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發想의 大轉換을 이룩하자고 提言하고자 한다. 『W이론을 만들자』의 저자인 이면우 박사의 말씀을 빌리자면 원불교식의 W이론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우리 교단이 지니고 있는 전통이나 역량 중에서 아직 모자라거나 없는 면을 걱정·비판하는 데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모자라고 없는 면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데 시간과 정열을 바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 보다는 오히려 우리 교단만이 지니고 있는 훌륭한 면,

우리 교단이 80여년의 교단사를 통해 세상과 대중들을 위해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을 찾아내어 그것을 키우고 가꾸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날에 가졌던 생각과 지난 날 이룩했던 성과나 업적에 만 집착하는 과거지향적 사고에 살지 말고, 미래사회에 알맞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취적인 사고와 기상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오랜동안 量的 성장을 중시했던 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質的 발전을 소중히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2. 새로운 교화전략의 몇가지 예

이 장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교화환경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그에 알맞는 새로운 교화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필자 자신이 교화경험이 부족하고, 교화현장이 아닌 교육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자인하면서 오로지 원불교의 교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조그마한 방향제시라도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도한 내용임을 이해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1)교화환경진단

고학력, 고소득, 핵가족화 사회에서 전통적인 종교 역할은 점차 그 매력을 상실할 것이며, 따라서 성직을 지망하는 지원자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지원자수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교역자 자질 하락을 가져 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교화의 정체를 부채질 할 것이다.

<대안>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게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종교의 역할 수정과 다양화를 통하여 미래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의 영역을 확보해야 하며, 성직자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성직의 매력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가야 한다.

<구체적 대책>

①전무출신 지원자 발굴 및 육성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교당 학생회중심 발굴에서, 청년회 및 대학생회 육성을 통한 발굴을 강화하고, 기성인재 발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교당을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운동센타로 계발하여 교당과 지역사회간의 거리를 좁히고, 교무와 지역사회 주민들과 접촉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인재발굴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예---공심야학과 삼동야학)

③새로운 교역자제도로 검토중인 敎務・道務・德務制는 전반적으로 전무출신지원자가 감소하는 환경과 맞물려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북일국민학교의 예---학생수가 6학년이 가장 많고 1학년이 가장 적다.상급학년에서 하급학년으로 올수록 여자가 현저하게 적다.)

2)교화환경진단

그동안 교화는 연원달기, 교화단불리기, 교당불리기 등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3대 교화방법을 중심으로 주로 量的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교화의 침체 현상을 말할 때면 흔히 입교자 수의 감소라든지, 출석자 수의 감소를 지적하곤 했다.

<대안>

교화의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생각에서 質的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화정책 전환 및 교무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구체적 대책>

①敎化의 本質이 무엇이며, 바람직한 敎化 方法論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토론, 교육이 필요하다.(예---KBS-TV 영산성지고등학교 소개)

②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에 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교당과 교무가 지역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예---전북지역의 경우 내년(1994)이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기념하는 해여서 많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회의 동향을 잘 활용하면 교화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③교화자에게 專門家 精神(Professionalism)이 필요하다.

전문가 정신이란---a.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것

b.最善을 다하는 것

c.責任을 질 줄 아는 것

d.자기 일에 대해 철저한 신념을 갖는 것

e.단체정신(Team-Spirit)을 발휘하는 것

3)교화환경진단

교화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고학력으로 인한 교도들의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교화자의 재교육, 보수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교화자가 현직을 가지면서 교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중에 있으나 교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화자들의 요구를 크게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안>

교화자에 대한 재교육과정을 크게 쇄신해야 하며(적어도 예비교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못지 않게 기성교무 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 교화자에 대한 재교육과정은 새로운 교화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할 것이다.

<구체적 대책>

①기성교무들에 대한 직무교육(주로 교화활성화에 필요한 과정)과정을 전문적으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軍의 장교양성및 재교육과정 참조

소대장(소위)---초등군사반에 입학(16주 교육)

중대장(대위)---고등군사반에 입학(24주 교육)

대대장(중령)---육군대학에 입학(1년 교육)

연대장(대령)---국방대학원에 입학)

②교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든지 아니면,교화자를 위한 전문과정

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교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바꿀 경우, 교화활성화에 필요한 과목중심으로 교과목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며, 담당교수도 능력있는 재가교도, 사회과학분야 등에서 과감하게 초빙하여야 한다.

(예---개신교의 경우 목회에 종사하는 목사들은 일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교육원과정에서 주로 공부한다.)

4)교화환경진단

소득이 높아지고,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를 즐기려는 사회적 추세는 갈수록 일반화될 것이며, 개인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準宗教的 성격의 조직과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다. 최근 붐을 타고 있는 수련단체(기공, 요가, 선, 단학, 단식 등)와 문화교양단체(향토문화연구회, 문화유산답사회 등)의 설립붐이 바로 그 한 예이다.

<대안>

현재 조직되어 있는 교단내의 각종 단체들을 사회변화에 맞게 쇄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교도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단체와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대책>

①불교계에서 禪수련을 이용하여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원불교적 배경을 가진 사회단체를 조직 육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예---영산대학은 현재 요가수련원 영산지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예비교무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들이 졸업후 교화현장에 나가 교당 또는 교구 부설 요가수련원을 개설하여 교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수지침, 죽염, 유정란, 우리밀, 무농약채소 등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도시와 농촌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自利利他정신을 실천하는데 유익한 단체를 육성하고 사회로 확대해야 한다.---->현재 각 교당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을 묶어서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각교구 별로 벌이고 있는 바자회를 생협운동, 소비자운동,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운동, 우리밀 살리기 운동 등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5)교화환경진단

1가정 1자녀갯기가 일반화 될수록, 국민소득이 높아갈수록, 사회가 민주화 되고 안정될수록 성직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줄어 들고 특히 여성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교당에서는 이미 공양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다. 또한 3D현상이 일반화되어 사회의 일반적 추세가 어렵고 힘들며, 위험하고 천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난이 일고 있다. 우리 교단도 갈수록 인력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대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기성 교화자들에게는 재교육기회를 통해 실력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정원은 하루 속히 행정간소화와 업무전산화를 이룩하여 인원을 현재의 1/2로 감축해야 한다. 여기서 남은 인원은 전원 인력이 모자라는 교화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 대책>

- ①교육과정을 쇄신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한다.(예---영산대학에서는 교육목표를 禪·文·勞·技로 정하고, 예비교무로 하여금 교화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능을 익히게 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취득, 요가자격증의 취득, 컴퓨터교육 등은 인력난시대를 사는 교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기존 교당, 기관, 교정원 등의 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전산화하여 최소 인력만을 쓰도록 하고, 남은 인력은 전원 교화현장으로 보내야 한다. 총력교화체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교정원이 모범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면 교단 전반에 걸쳐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 ③사회에 만연한 3D현상이 우리 교단에도 그대로 수용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극복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예---예비교무들의 봉사활동을 부활해야 할 것이며, 교무들도 1년에 1회씩은 사회복지단체와 같은 어려운 곳을 찾아 봉사하는 운동을 전통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교구별로 전 교무가 1년 1회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하는 전통을 만들자는

것이다.)

6) 교화환경진단

갈수록 한문을 모르고 한글만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조부모님, 부모님 성함을 한자로 써 보라 하면 못쓰거나 틀리게 쓰는 학생들이 2/3이상이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한글세대들에게 우리 교서는 이제 어려운 한자말이 많은 경전으로 소문나 있다. 말이 어려워지고 글이 어려워지면 그 전달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현재 각 교당의 상당수 교도들이 교무님 설교말씀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안>

기본 교서를 보다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새로 고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기성교무 재교육과정에서 쉬운 말,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 아름다운 우리말로 설교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한다.

<구체적 대책>

- ① 기본교서를 쉬운 우리말로 다시 펴내는 작업을 하루빨리 하자. (우리나라에서 한글보급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인데, 그 과정에서 한글성경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즉 우리말 보급운동은 한글성경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한글성경은 우리말 보급과 함께 기독교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새로 고치고 다듬어서 내놓고 있다. 우리 교단이 크게 본받아야 할 자세이다.)
- ② 예비교무 교육과정에서 국어교육을 대폭 강화하자.
- ③ 교무 훈련과정에서 쉬운 말로 설교안 작성하는 훈련을 하게 하자.
- ④ 기본교서 안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뽑아내서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꾼 색인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자.